'5월 매수전환' 연기금, 그래도 국내비중 계속 줄인다

5월 국내주식 606억 규모 순매수
월간 기준 1년만에 매수태세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장 많이 담아

국민연금, 동학개미 여론 의식
자산군별 목표비중 비공개 결정

지난달 2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제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1년 만에 국내주식 매수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5월 이후 첫 월간 기준 순매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낮추기로 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5월에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 60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연기금은 국내주식을 27조4871억원 가량을 팔아 치웠다. 같은 기간 전체 기관의 순매도 금액이 63조2165억원임을 감안하면 기관 매물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동학개미가 증시 하락의 주범은 연기금이라고 꼬집었던 이유다.

KRX가 연기금으로 분류하는 수급 주체는 연금, 기금, 공제회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매수 1위 종목…삼성바이오로직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수 전환은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1%포인트 확대해 비중 상한을 19.8%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달 들어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되자 공매도 우려로 주가가 부진한 저평가 종목을 사들였다는 분석이다.

5월 한달간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연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64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대차(1255억원), 대한항공(1199억원), CJ제일제당(890억원), 기아차(837억원), 에쓰오일(827억원), 호텔신라(804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회복세가 예상되는 자동차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여행 재개 기대감이 반영된 항공주·면세점주, 경기민감주로 꼽히는 식품주 등을 골라 담았다.

반면 같은 기간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5762억원)였다. 이어 LG화학(1509억원), SK하이닉스(1286억원), SK텔레콤(1474억원), 네이버(1142억원) 등을 팔았다.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비중 늘린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은 올해 제6차 기금위 회의를 열어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기금운용계획안,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더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 말 목표 비중을 기존 16.8%에서 16.3% 수준으로 낮췄다. 이어 2026년 국내주식 자산 비중은 기존 15%에서 14.5%로, 해외주식 자산 비중은 기존 35%에서 35.5%로 조절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29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기금축적기로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높여 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금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세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올해부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개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목표 자산 비중 역시 국민연금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기금위 관계자를 통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비공개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재건축 바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5월 서울 전월 대비 0.05%p 올라
강북권 개발호재 중저가 위주 상승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확대됐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0%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0.40%로 전월 대비 0.05%p 올랐으며 경기도 1.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부평, 미추홀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 위주로 1.42%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권역의 경우 개발호재 있는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76%)는 상계·월계동 재건축 위주, 도봉구(0.57%)는 창동 역세권 주요단지, 마포구(0.38%)는 공덕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지만 중구(0.20%)·종로구(0.18%)는 구축 위주로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과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 위주로 매수세를 나타냈다. 강남구(0.60%)는 압구정·도곡동 위주로, 서초구(0.59%)는 반포·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53%)는 잠실·가락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6%로 지난달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이 0.20%에서 0.18%로 축소됐다. 경기는 정주여건 또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시흥·평택·오산시 위주로 0.38%, 인천은 쾌적성 높은 청라·송도신도시나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0.81%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0.69%)가 정주여건이 양호한 상계·월계동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성북구(0.41%)는 길음·하월곡·돈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39%)는 녹번·신사·갈현동 위주로 상승했지만 지난달 대비 강북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

구로구(0.24%)는 신도림·구로·개봉동 역세권, 영등포구(0.15%)는 여의도·당산동, 서초구(0.10%)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했으며 송파구(0.10%)는 잠실·문정·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01%)는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전환됐고, 양천구(-0.01%)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인플레이션 우려에 주식거래 소극적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테슬라 사랑 여전
7개월 연속 최선호주 자리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 상승 압박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주식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테슬라가 순매수 1위였다. 주요 기술주가 인기를 끌었지만 에어비앤비 등 경기민감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3597만달러 규모의 테슬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테슬라는 3.09% 오름세를 보였다. 월간 기준으로 테슬라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최선호주 자리를 지켰다. 이어 아마존(1811만달러), 에어비앤비(1328만달러), 알리바바(1048만달러)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전에도 인기종목으로 자리했으나 에어비앤비의 진입이 눈에 띈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초만 해도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최근 에어비앤비에 쏠린 매수세는 미국 인구 전체의 4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여행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된다.

'MUB(S&P National AMT-Free Municipal Bond Index)'도 1003만달러 규모로 순매수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AAA와 AA 등급 미국 지방채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외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880만달러)도 7위에 올랐으며 도쿄일렉트론도 763만달러 어치를 순매수해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투자자가 순매수한 해외주식 상위 10종목〉 (5월24일~31일, 단위 :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액
1	테슬라	3597만
2	아마존	1811만
3	에어비앤비	1328만
4	알리바바	1048만
5	MUB (iShares National Muni Bond ETF)	1003만
6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891만
7	코인베이스	880만
8	도쿄일렉트론	763만
9	아이셰어즈 코어 S&P 500 ETF	746만
10	스파이더 (STANDARD & POOR S DEPOSITORY RECEIPTS)	726만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인기도 여전했다. MUB뿐 아니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두 ETF인 아이셰어즈 코어 S&P500 ETF와 S&P DEPOSITORY RECEIPTS'(스파이더)도 각각 746만달러, 726만 달러 규모로 사들였다.

월 별로 살펴보면 올해 처음으로 해외 주식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순매도 금액은 118억269만달러였다. 해외주식 결제 규모는 올해 2월 487억2948만달러로 500억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달 256억달러 수준까지 급감한 뒤 이달도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며 적극적인 매수를 꺼리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송태화 기자 alvin@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해외주식 지급 이벤트

구글·테슬라·나이키·SPY 등
24일까지 매일 50명에 1주 지급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4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다.

행사 기간 이벤트에 신청한 해외주식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일 50명에게 해외주식 1주를 지급한다. 지급 종목은 구글·테슬라·나이키·SPY·QQQ 등 예탁결제원 한국정보포털 세이브로 4월 순매수결제 상위 50종목 중 무작위로 결정된다.

추첨은 하루 한 번 진행되며, 당첨되지 않은 고객은 이벤트 종료까지 매일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된 주식은 추첨일 포함 5영업일에 고객 계좌로 지급 된다.

/송태화 기자